

‘仙遊八景’의 ‘華陽九曲’·‘仙遊九曲’으로의 분화변천 과정

李相周*

-
- I. 머리말
 - II. ‘仙遊八景’의 ‘華陽九曲’·‘仙遊九曲’으로의 분화변천 과정
 - III. ‘華陽’·‘仙遊’·‘葩串’이란 명칭의 漢字 表記 변천
 - IV. ‘華陽’·‘葩串’이라 명칭의 연원
 - V. 맺음말
-

I. 머리말

‘華陽九曲’¹⁾과 ‘仙遊九曲’²⁾은 기암괴석과 녹수청산이 조화를 이룬 명승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구곡으로 분화되기전에, 그 권역내에 ‘仙遊八景’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않다. 본래 ‘華陽’·‘仙遊’·‘葩串’은 ‘仙遊八景’의 일부였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분화변천된 것이다. 전래하는 각종 문헌에, ‘華陽’은 ‘黃楊’으로, ‘仙遊’는 그대로 ‘仙遊’로, ‘葩串’은 ‘巴串’·‘巴溪’·‘葩谷’·‘巴谷’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나는 ‘仙遊八景’·‘華陽九曲’·‘仙遊九曲’의 분화변천과정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 추적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華陽’·‘仙遊’·‘葩串’라는 명칭의 변천과정과 그 漢字表記의 변천과정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구곡문화관 광특구’의 백미인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의 설정에 대한 내력은 물론, 그 설정에 관련된 인물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한다.

II. ‘仙遊八景’의 ‘華陽九曲’·‘仙遊九曲’으로의 분화변천 과정

‘仙遊八景’이 ‘華陽九曲’과 ‘仙遊九曲’으로 분화되기 전에, 선유동에는 李寧이 살고 있었다. 이녕의 가계와 교유관계, 그리고 이녕이 선유팔경의 설정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상론했다.³⁾ 宋寅(1516~1584)의 「贈七松居士并序」를 살펴보다.

前略

만년에 淸州의 淸川縣⁴⁾東쪽 三十里 葩串山의 仙遊洞⁵⁾에 집을 결성했는데, 집 주위에 일곱개

* 문학박사. 청주대·충북대·배재대 강사

1)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일대

2)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4리 선유동일대

3) 李相周, 「괴산군 仙遊洞의 傳說的·仙趣의 인물 李寧의 가계와 생애」, 『中原文化論叢』 제5집, 충북대학교 中原文化研究所, 2001.

의 큰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어 그곳을 七松이라 지목했다. 항상 누런 소를 타고 산림간을 왕래하며 그 흥을 따라갔다. 그래서 또한 騎牛子라 號를 삼았다. 6)

위에서 보듯이 당시에는 지금의 화양동을 포함해서 선유동 일대를 파곳산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녕이 살던 위치는 지금의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선유동입구 선유교회자리라고 한다.

이녕은 지금의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일대에 '仙遊八景'을 설정했다. 다음을 보자.

거사는 仙遊洞의 승경에 대해 후인들이 혹 어둑하게 될까봐 염려하여, 돌아다녀야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표시하여 알릴 방도를 생각한 것은 기이한 일이라 일컬을 것이며, 화피관(樺皮冠)은, 또한 기이한 복식이라 일컬을 것이다.7)

이녕이 후세사람들이 선유동을 잘 알아볼 수 있게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다면, 확실하고도, 내구성 있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그 표시한 방법을 기술해 놓지 않아, 어떻게 표시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아 바위에 새겨놓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하기 위해 답사를 했으나, 아직은 성과가 없다.

'華陽=黃楊'·'仙遊'·'葩串'등 세 지역을 포함한 '仙遊八景'은 宋時烈이 화양동에 은거하고 그 제자 權尙夏가 '화양구곡'을 명명하면서 변이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이녕이 설정한 선유팔경중 제6경 '仙洞訪鶴'을 제외하고 제3경 '華陽賞春'이 설정되었던 '華陽'과 제4경 '葩串尋僧'이 설정되었던 '葩串'을 포함한 지역에 '화양구곡'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녕이 설정한 '선유팔경'이 무시되고 분해되는 상황을 맞게 것이다. 후진들에 의해서 선배들이 설정한 팔경이 분해된 것이다.

그러면 '화양구곡'을 설정한 사람과 구곡의 명칭의 글씨를 쓴 사람을 알아보자. 『華陽誌』에 수록한 尤庵年譜의 내용이다.

병오년(1666년) 靑川의 枕流亭을 빌려 머물다가, 처음 띠풀을 베어 華陽洞에 거주했다. 이후로, 해마다 출입이 많아 오랜 기간만(淹時月)에 懷德에 돌아왔다.8)

병오년(1666년), 선생이 60세 되던 8월 기사일에 華陽洞에 거주했다.(華陽洞은 청천현 동쪽 巴谷의 하류인 洛陽山아래에 있는데 청천현에서 20리 떨어졌다.)9)

九曲洞天. 구곡의 명칭을 살펴보면, 혹 지명에 인연하기도 하고 혹 고래의 뜻에서 취하기도 했다. 선생이 생존할 당시에 많이 시작된 것이 많은데 구곡을 정했으니 즉 실제로 遂菴 權尙夏공이 명명한 것이다. 丹巖 閔鎮遠 相公이 篆書로 새겼으며, 오직 泣弓岩은 아울러 隸書의 큰 글씨로 새겼는데 尹憲柱의 글씨이다. 또 金沙潭가 큰 돌에 새긴 '華陽水石, 大明乾

4) 지금 충북 괴산군 靑川을 淸川으로 썼다.

5)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선유동.

6) 宋寅. 『懶庵集』. 「贈七松居士并序」 한국학중앙연구원. 卷二 99쪽. 晚結廬于淸州淸川縣東三十里葩串山之仙遊洞. 纔屋有七夫松. 以七松日之. 常騎黃犢. 往來林野間. 以適其興. 故亦號爲騎牛子.

7) 宋寅. 앞의 글. 居士恐仙遊之勝. 後人或昧焉. 惓惓然不憚其跋涉. 圖所以表章之者. 可謂奇事. 而樺皮冠. 亦可謂奇服矣.

8) 宋周相, 『華陽誌』, 1807년간. 「卜居始末 附 巖棲齋事實 年譜節略」. 丙午, 借寓淸州靑川之枕流亭, 始誅茅, 卜居于華陽洞. 自後, 逐歲出入多, 淹時月及歸懷德.

9) 宋周相, 위의 책, 「年譜節略 附」. 丙午(1666년), 先生 年六十歲, 八月 己巳, 卜居于華陽洞(洞在淸州靑川縣東 巴谷下流 洛陽山下, 距縣二十里.)

坤'의 8자의 큰 글씨도 또한 윤헌주의 글씨이다.¹⁰⁾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송시열이 구곡의 위치를 정하고, 구체적인 구곡의 명칭은 그의 수제자인 權尙夏가 명명했다. 또한 구곡 각각의 명칭을 篆書로 쓴 사람은 閔鎭遠이다. 다만 '읍궁암'이라는 글씨와, 일제가 정으로 쪼아버려 지금은 알아볼 수 없는 '華陽水石, 大明乾坤'의 8자는 尹憲柱의 글씨이다. 이는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논문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¹¹⁾. 그러나 '선유구곡'의 설정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유구곡'의 설정자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는 '선유구곡'내에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선유구곡' 제1곡 '仙遊洞門'에 '仙遊洞門'이란 글씨는 왼쪽부터 횡서로 썼으며 '李普祥書'라는 글씨는 그 옆에 종서로 새겼다. '선유구곡' 제9곡 '隱仙巖'에 새겨놓은 암각서이다. '金時祭·李普祥·鄭述祚·洞主人 李尙侃 등이 壬申 九月 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례로 종서로 썼으며, 그 다음 '隱仙巖'은 횡서로 썼다. 살펴보기로 하자.

①. '선유구곡' 제1곡 '선유동문'에 새겨놓은 암각서

仙遊洞門 李普祥書

②. '선유구곡' 제9곡 '은선암'에 새겨놓은 암각서

金時祭

李普祥(단양군 영춘면 上2리 느티 '북벽'에도 이름을 새겨놓음: 인용자 주)

鄭述祚

洞主人 李尙侃

壬申九月日

隱仙巖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유구곡'은 金時祭·李普祥·鄭述祚·洞主人 李尙侃 등이 壬申(1752년)九月 日에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英祖實錄』을 참고해보면, 김시찬은 1751년 12월 2일(甲午)에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받았으며, 1754년 3월 17일(丁卯)에 사간으로 임명받았다.¹²⁾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바로 이듬해에 李普祥·鄭述祚, 그리고 선유동의 주인인 李尙侃과 함께 '선유구곡'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선유구곡'의 설정연대를 규명함으로써, 1865년에 설정된 '烟霞九曲'과 함께 설정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九曲이 되었다. '葛隱九曲'의 설정자 全德浩와 '연하구곡'의 설정자 盧性度도 암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이런 전례로 보아 위에 제시한 사람들이 '선유구곡'을 설정했다고 보는 데 무리는 없다. 더우기 仙遊洞의 소유주인 李尙侃이 동참합의하에 선유구곡을 설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仙遊洞門'이라는 글씨를 李普祥이 쓴 것으로 보아, '선유구곡' 각각의 명칭의 글씨를 그가 썼을 것으로 보아진다. '선유구곡'을 설정한 인물들인 金時祭·李普祥·鄭述祚과 洞主人 李尙侃의 가계

10) 宋周相, 위의 책, 「地名沿革」 九曲洞天 “今按九曲名號, 或仍地名, 或取古義, 多昉於先生時, 而其定爲九曲, 卽 實 遜菴權公所命也. 丹巖閔相公鎭遠以篆鐫刻, 而惟泣弓岩並有隸字大刻字乃尹憲柱筆, 又金沙潭邊大石刻華陽水石大明乾坤八大字亦尹筆也.

11) 김영진, 「華陽書院考」, 『충북문화논고』, 향학사, 1997. 14쪽.

12) 영조 27년(1751년) 12월 2일(甲午). 김시찬을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영조 30년(1754년) 3월 17일(丁卯). 김시찬을 사간으로, …, 李重祚를 교리로 삼고,

와 생애에 대해서는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 상론하기로 한다.

이렇듯 ‘화양구곡’이 설정된 이후, ‘선유팔경’의 제6경 ‘仙洞訪鶴’이 설정되었던 선유동에는, 李普祥과 仙遊洞主人인 李尙侃등에 의해 ‘선유구곡’이 설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선유팔경’에서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의 분화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자.

1). 제1기: 선유팔경시대 - 1500년대

①. 선유팔경의 설정자 및 명명자: 李寧(1514~1570이후 어느 시기)

②. 명칭: 華陽·仙遊·葩串 - 선유팔경의 일부

③. 선유팔경을 표시한 사람: 이녕

④. 선유팔경 각각의 명칭: 제1경 松亭待月, 제2경 門巖修契, 제3경 葩串尋僧, 제4경 黃楊賞春, 제5경 沙坪牧牛, 제6경 仙洞訪鶴, 제7경 花山採藥, 제8경 岐灘釣魚

⑤. 선유팔경을 읊은 시: 成運(1497~1579), 『大谷集』, 「七松八景」. 李滉(1501~1570), 『退溪集』, 「仙遊洞八詠」.

2). 제2기: 화양구곡시대 - 1600년대

①. 화양구곡의 위치를 설정한 사람: 宋時烈(1607~1689)

②. 화양구곡 각각의 명칭을 명명한 사람: 權尙夏(1641~1721)

③. 명칭:

ㄱ. 華陽 - 華陽九曲의 총칭으로 전환.

ㄴ. 葩串(화양구곡시대이후 葩溪·葩谷·巴串·巴谷·巴溪으로 한자 표기가 변화됨) - ‘巴串’이라 표기하고 華陽九曲 제 9곡이 됨.

ㄷ. 仙遊: - 화양구곡에서 제외시킴

④. 화양구곡 각각의 명칭을 글씨로 쓴 사람: 尹憲柱(1661~1729) - 제3곡 泣弓巖의 글씨. 閔鎮遠 - 나머지 구곡중 8개의 글씨.

⑤. 華陽九曲 각각의 명칭: 제1곡 擎天壁, 제2곡 雲影潭, 제3곡 泣弓巖, 제4곡 金沙潭, 제5곡 凌雲臺, 제6곡 瞻星臺, 제7곡 臥龍巖, 제8곡 鶴巢臺, 제9곡 巴串.

⑥. 화양구곡을 읊은 한시: 任相周, 「漫興詠華陽九曲」. 權震應, 「華陽九曲和武夷棹歌十首」. 宋欽學, 「應華陽九曲依武夷棹歌十韻」 이상은 인쇄본 『華陽誌』. 朴胤源(1734~1799), 『近齋集』, 「題華陽九曲」. 朴文鎬(1846~1918), 『壺山集』, 「華陽九曲詩」.

3). 제3기: 화양구곡·선유구곡의 양분화시대 - 1700년대 이후

①. 화양구곡: ‘제2기 화양구곡시대’의 내용과 같음

②. 선유구곡

ㄱ). 설정연대 및 설정자: 1752년 金時燦(1700~1767)·李普祥(1698~1775년)·鄭述祚(1711~1788)과 仙遊洞主人인 李尙侃(1715~1765) 등

ㄴ). 글씨를 쓴 사람: 李普祥

ㄷ). 명칭: 仙遊 - 仙遊九曲의 총칭으로 전환

ㄹ). 선유구곡 각각의 명칭: 제1곡 仙遊洞門, 제2곡 擎天壁, 제3곡 鶴巢臺, 제4곡 煉丹爐, 제5곡 臥龍瀑, 제6곡 爛柯臺, 제7곡 碁局巖, 제8곡 龜巖, 제9곡 隱仙巖.

ㅁ). 선유구곡을 읊은 한시: 洪致裕(1879~1946), 『兼山集』, 「仙遊九曲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유팔경’중의 제3경인 ‘華陽賞春’이 설정되었던 ‘華陽’과 제4경인 ‘葩串尋僧’이 설정되었던 ‘葩串’의 권역내에, ‘화양구곡’을 설정함으로 하여 ‘화양구곡’으로 분화되었다. 그 후 ‘선

유팔경'중 제6경 '仙洞放鶴'이 설정되었던 선유동에 '선유구곡'이 설정되어 '화양구곡'·'선유구곡'의 양분화시대를 맞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선유팔경'은 역사속에 매몰되어 일부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화양구곡'은 압벽에 각각의 구곡의 명칭을 거대하게 음각해놓아, 육안으로 금방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있어, 오늘날까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이념은 선유동을 후세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표시를 해놓았다고 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바위에 새겨놓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직 그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런 사정이 '선유팔경'을 역사속으로 매몰되게 한 요인이다. 시각적으로 분명한 기록이, 실존했던 역사를 본의든 우연이든 퇴색시키거나 말살왜곡될 수 있다는 준엄한 사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이다. 다행히 이념과 교류했던 저명 인사들이 남긴 기록에 '선유팔경'의 실체와 이념의 인적사항이 남아있어, '선유팔경'을 밝힐 수 있으며, 그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어 다행이다.

Ⅲ. '華陽'·仙遊·'葩串'이란 명칭의 변천과정

앞서 언급했듯이, '華陽·仙遊·葩串'은 '선유팔경'중의 일부이다. 이 명칭은 기록으로 정착되기전부터 불려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華陽'·'仙遊'·'葩串'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보이는 문헌은 成運(1497~1579)의 『大谷集』, 「七松八景」¹³⁾詩이다. '葩串'은 지금 대개 '파천'으로 읽고 있으나 '파곶'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¹⁴⁾

「七松八景」중

제3경 華陽賞春 화양동에서 봄 즐기기

제4경 葩串尋僧 파곶사로 중을 찾아가기

제6경 仙洞訪鶴 선유동에서 학 찾기

다음으로 李滉의 『退溪集』, 「仙遊洞八詠」¹⁵⁾詩이다.

「仙遊洞八詠」중

제3경 葩串尋僧

제4경 黃楊賞春

제6경 仙洞訪鶴

위에서 보듯이 성운은 「七松八景」에서, 제3경에 '華陽賞春', 제4경에 '葩串尋僧', 제6경에 '仙洞訪鶴'를 설정했다. 그런데 李滉(1501~1570)은 제3경에 '葩串尋僧', 제4경에 '黃楊賞春', 제6경에 '仙洞訪鶴'를 설정했다. 즉 성운과 「七松八景」과 비교해볼 때, 제3경과 제4경이 바뀌었다. 그런가하면 성운

13) 成運(1497~1579), 『大谷集』, 「七松八景」, 한국문집총간 28, 민족문화추진회.17~18쪽

14) 파곶(葩串): 지금 '바串'이라 표기하며, 대개가 파천으로 읽는다. 나는 '파곶'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串'은 지명을 가리킬 때 쓰는 우리 한자음(漢字音)으로 '곶'으로 읽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지명으로 쓰일 때는 '곶'으로 읽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인천광역시 강화군 '甲串里' '月串里'가 그 예이다. 충북 충주시 '金串'도 그 한 예이다. 李安訥, 『東岳集』 「自忠州金串渡, 乘船而下, 到廣津上岸, 船中記興 四首」.

15) 李滉, 『退溪集』, 「仙遊洞八詠」, 한국문집총간 29~30, 민족문화추진회.157~158쪽, 1570년작)

은 ‘華陽’, 이황은 ‘黃楊’으로 표기했다.

대개 1500년경에는 이미 ‘華陽’·‘仙遊’·‘葩串’이라는 세 지명이 보편화되어 통용되었던 것 같다. 그 몇몇의 용례를 더 들어본다. 앞의 인용문은 成運의 「仙遊居士索詩題荒句以塞其勤」 4수중 제 2수의 제 1구이며, 뒤의 인용문은 成運의 「遊葩串」 제1구이다.

‘華陽洞裏昔探春, 華陽洞안에서 전에 봄을 즐길 때,’

‘華陽佳勝自天成, 화양동의 아름다운 경치는 천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음은 朴枝華의 詩 「將入東海, 李領之偶然訪宿, 書以贈別 五首」 16)중 제1수의 제1구와 제2구이다.

宿昔遊仙洞, 그전부터 선유동에 살면서,
揮手謝塵霧. 손 내저어 티끌안개 사양했네.

다음으로 盧守愼(1515~1590)의 『蘇齋集』, 「歡喜寺」 17)詩를 보자. 그 시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였다.

‘俗稱葩串寺, 葩串實山名’. ‘속칭葩串寺라 하는데葩串은 실제 산의 이름이다.’

또 「葩溪」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一名, 葩串造泡.’ ‘一名, 葩串造泡라 한다.’

따라서葩串寺는 지금의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었던歡喜寺이라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의 ‘화양구곡’ 제9곡 ‘巴串’일대를 관류하는 시내의 이름이 ‘葩溪’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邑誌』, 李秉延의 『朝鮮寶輿勝覽』·權相老의 『寺刹全書』 등에 ‘환희사’나 ‘과꽃사’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과꽃사’가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인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유성룡(1542~1607)이 1569년에 남긴 기록을 살펴보자.

청주동쪽 淸川縣에葩串寺가 있다.仙遊洞의 시내와 암석은絶勝이다.山中에居士李領이 살고 있다. 스스로호를七松居士라 했다.大谷成運과退溪先生이 모두그에게준시가 있다.공이葩串寺와仙遊洞에놀러가서退溪의운에차운하여이녕에게주었다. 18)

위의 기록들을 통해 볼 때, ‘華陽(黃楊)’·‘仙遊’·‘葩串(葩溪)’라는 지명은, 李寧이 선유팔경을 설정할 시기엔, 그와 교유했던 인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기록화되었다는 사실과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본래 ‘仙遊八景’의 일부였던 ‘華陽’·‘仙遊’·‘葩串’이 ‘화양구곡’·‘선유구곡’으로 분화되었으나, ‘華

16) 朴枝華, 『守庵遺稿』, 한국문집총간 34책, 민족문화추진회, 123쪽.

17) 盧守愼, 『蘇齋集』, 「歡喜寺」. 한국문집총간 35, 민족문화추진회, 250쪽.

18) 柳成龍(1542~1607), 「終天永慕錄」, 『古文書集成』 十八, 河回豊山柳氏篇. 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80쪽. 己巳(1569년)三月初九日. … 還鄉寒食拜掃先塋. … 州東面淸川縣. 有葩串寺. 仙遊洞泉石絶勝. 山中有居士李領居之. 自號七松居士. 成大谷運及退溪先生皆有贈詩. 公時行遊葩串寺仙遊洞. 次退溪韻. 以贈領.

陽'과 '葩串'은 '화양구곡'중에서도 대표적인 명소로 변함없이 명성이 있었다. 몇 몇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하자. 대표적으로 '화양구곡' 제1곡 경천벽 상류쪽 암벽에 해서체인 '華陽洞門'이라는 글씨를 거대하게 가로로 음각해놓았다.

이번엔 '화양동'의 명칭에 대한 표기 사례를 시인묵객들의 시를 통해 알아보자.

- . 宋時烈(1607~1689), 『宋子大全』, 「華陽洞雨後」. 「華陽山寺吟 示諸君」.
- . 朴世采(1631~1695), 『南溪集』, 「到華陽洞作」.
- . 權尙夏(1641~1721), 『寒水齋集』, 「沿瀨川泝入華陽途中口占」. 「華陽洞 次鄭仲淳韻」.
- . 申靖(1681~1710), 『恕菴集』, 「華陽洞」.
- . 尹鳳九(1681~1767), 『屏溪集』, 「華陽洞坐老先生書室有感」.
- . 沈 鎔(1685~1753), 『樗村遺稿』, 「華陽洞」.

이번엔 '葩串'·'巴串'·'巴谷'·'巴溪'로 표기한 사례를 들어본다.

- . 宋時烈(1607~1689), 『宋子大全』, 「仙遊洞」 제1구에 巴谷이라 씀. 「巴谷 次龜峰韻」. 「巴谷有怡愉李老題名有感而作」. 「(葩谷次農巖韻)」 제5구에 巴溪라 씀.
- . 權尙夏(1641~1721), 『寒水齋集』, 「陪尤菴先生 往遊巴串仙遊洞 暮歸二首」.
- . 金昌協(1651~1708), 『農巖集』, 「陪尤翁遊葩串」.
- . 李夏坤(1677~1724), 『頭陀草』, 「巴串」.
- . 鄭來僑(1681~1757), 『浣巖集』, 「巴串」.
- . 任相周, 「漫興詠華陽九曲」 제 9곡 巴串. 『華陽誌』.
- . 權震應, 「華陽九曲和武夷棹歌十首」 序詩 제2구에 '巴谷'이라 쓰고, 제 9곡 '巴串' 제3구에 '巴溪'라 씀. 『華陽誌』
- . 宋欽學, 「應華陽九曲依武夷棹歌十韻」 제 9곡 巴串. 『華陽誌』
- . 朴胤源(1734~1799), 『近齋集』, 「題華陽九曲」 제 9곡 巴串.
- . 朴建中(1766~1841), 『仙谷遺稿』, 「遊華陽洞」. 「華陽洞」. 「遊巴串」. 「巴串」
- . 朴文鎬(1846~1918), 『壺山集』, 「華陽九曲詩」 제 9곡 巴串.
- . 기행산문으로 金昌協(1651~1708), 『農巖集』, 「華陽諸勝記」에 '葩谷'이라 표기했다.

앞에서 인용했던 宋周相, 『華陽誌』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병오년(1666년), 선생이 60세 되던 8월 기사일에 華陽洞에 거주했다.(화양동은 청천현 동쪽 巴谷의 하류인 洛陽山아래에 있는데 청천현에서 20리 떨어졌다.)¹⁹⁾

위 글에서 '華陽洞'과 '巴谷'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 이념의 선유팔경시대부터 송시열의 화양구곡시대에도 두 곳을 대표적 절승으로평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漢字의 표기는 다르지만 '과곳'에 대한 설명을 보기로 하자.

巴串의 암반. 전략. 또 巴串으로 부터 동쪽으로 10리 들어가서 七松亭을 지나면, 무릇 四涉川 북쪽에 하나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즉 선유동이다. 즉 聞慶 땅으로 大治山아래에 있는데 그 아늑하고 깊숙하고 기이하고 절경인 것이 巴串과 서로 백중지세이다.²⁰⁾

19) 宋周相, 위의 책, 「年譜節略 附」. 丙午(1666년), 先生 年六十歲, 八月 己巳, 卜居于華陽洞(洞在 淸州靑川縣東 巴谷下流 洛陽山下, 距縣二十里.)

20) 宋周相, 앞의 책. 「地名沿革」, 九曲洞天 附, 巴串盤. 前略 又自巴串行東入十里許, 歷七松亭, 凡

윗글에서는 ‘葩串’을 ‘巴串’으로 표기했다.

다음은 『忠淸道邑誌』 권8 청주목 산천조(헌종연간:1835~1849)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록을 보자.

華陽洞. 落影山이 둘러싸인 가운데葩串이 있는데, 흐르는 물과 바위가 맑고 고와 특별한 승경지를 이루고 있다. 우암 송시열이 만년에 이곳에 은퇴하여 煥章菴을 창설하고 非禮不動四字를 바위에 새겼는데 崇禎皇帝의 御筆이다.²¹⁾

仙遊洞. 청주목에서 동쪽으로 100리 華陽洞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 경치가 수려하여葩串과 더불어 우열을 다툰다.²²⁾

여기에는 ‘葩串’이라 표기하고 있다.

이보다 후대의 문헌인 『湖西邑誌』, 고종6년(1891년) 제 10권 산천조에는 모두 ‘巴串’으로 표기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華陽’·‘仙遊’·‘葩串’의 漢字 표기 변천과정을 정리해본다.

제1기 선유팔경시대 - 1500년대: ‘華陽(黃楊)’·‘仙遊’·‘葩串(葩溪)’

제2기 화양구곡시대 - 1600년대: ‘華陽’·‘仙遊’·‘葩串(巴串·葩谷·巴谷·巴溪)’

제3기 선유구곡시대·화양구곡시대이후 - 1700년 1800년대: ‘華陽’·‘仙遊’·‘葩串(巴谷·巴溪)’

제4기 현재: 華陽·仙遊·巴串으로 보편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화양동’은 지금의 청천면 화양리 金沙潭 근처 즉 ‘華陽書院’과 ‘萬東廟’가 있었던 주변을 지칭하는 것이다. ‘葩串’은 지금 ‘화양구곡’ 제 9곡 ‘巴串’을 지칭하는 것이다. 華陽洞은 선유팔경시대에는 제3경 ‘華陽賞春’이 설정되었던 곳이며, ‘葩串’은 제4경 ‘葩串尋僧’이 설정되었던 곳이나, 화양구곡시대에는 제9곡 ‘巴串’이 설정된 곳이다.

과곳의 漢字表記가 달라진 일정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제, 지명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葩串(巴串)’이라 썼다. 둘째, ‘葩串’에 흐르는 시내라는 의미로 쓸 때는 ‘葩溪(巴溪)’으로 썼다. 셋째, 지명과 시내를 통칭하는 관용어로 썼다. 넷째, 초기에 ‘葩串(葩溪)’로 표기하다가, 후대로 오면서 ‘巴串’·‘葩谷’·‘巴谷’·‘巴溪’등으로 표기했다. 이는 상투적 관용적으로 썼으며, 때로 詩의 平仄을 맞추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운을 쓰는 과정에서 한자 표기가 달라지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4. ‘華陽’과 ‘葩串’이란 명칭의 유래

이제 ‘華陽’·‘葩串(葩溪)’라고 명명하게 된 연유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화양동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해 알아본다. 『華陽誌』, 「地名沿革」을 보자.

四涉川北入一谷, 則 乃仙遊洞. 卽 聞慶地, 在大治山下, 其幽深奇絶, 與巴串, 可相伯仲也.

21) 『忠淸道邑誌』 권8 청주목 산천조(헌종연간:1835~1849) 국립중앙도서관. 華陽洞. 落影山之中, 有葩串, 泉石明麗, 境地特別. 尤庵宋時烈晚年退休於此, 蒔置煥章菴, 巖石上刻非禮不動四字, 乃崇禎皇帝御筆也.

22) 위의 책. 仙遊洞. 在州東百里, 距華陽十里. 水石奇異, 景致秀麗, 與葩串爭勝.

華陽洞은 일명 黃楊洞이라하는데 黃楊木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23)

九曲洞天. 구곡의 명칭을 살펴보면, 혹 지명에 인연하기도 하고 혹 古義에서 취하기도 했다. 24)

‘華陽’이란 어원은 ‘黃楊木’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기록하고 있다. 필자도 어렸을 때, 할머니(辛富德 1900~1976)로 부터, 화양목이 많아서 화양동이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 화양동에 화양목이 많이 자생한다. 지명을 형성하는 몇 가지 원칙중에 특산물의 명칭을 따서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화양’이란 어원은 1차적으로 화양목이라는 나무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보았듯이, 成運이 「七松八景」 중 제3경 ‘華陽賞春’, 다음으로 李滉의 『退溪集』, 「仙遊洞八詠」 중 제4경 ‘黃楊賞春’이라 표기했다. 이때 이미 ‘華陽木’ 또는 ‘黃楊木’으로 병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학술적 명칭은 ‘黃楊木’이나 속칭 ‘華陽木’으로 널리 불려진다. 잘 알다시피 ‘黃楊木’은 타원형의 잎이 마주나는 상록 관목이다. 정원의 화단 가장자리를 둘러 치장하는 상록수로 각광받고 있다.

‘화양구곡’ 각각의 이름을 명명할 때 지명과 古義에서 취했다고 했다. ‘화양구곡’ 각각의 명칭중에, 전래하는 지명을 따서 붙인 것은, ‘巴串’ 하나다. 여기서 필자는 成運의 「七松八景」·「仙遊居士索詩題荒句以塞其勤」의 내용과 이녕의 의식과 생활면을 중시하여 ‘화양’이란 지명의 또 다른 연원을 추정해보고자한다. 중국의 지명과 관련된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成運의 「七松八景」 제5경을 읊은 시를 보기로 하자.

제5경 沙坪牧牛 사평에서 소 기르기

怕向齊軍火燎身²⁵⁾, 옛날에 齊나라 군대가 꼬리에 불지른 일을 두려워며,
桃林²⁶⁾喜臥草生春. 봄풀 자란 도림에 드러누워있기를 좋아하네.²⁷⁾
有時蒲薦尋山去, 때때로 부들자리 가지고 산을 찾아가니,
却勝金鞍朝紫宸²⁸⁾. 도리어 금장식 안장 타고 조회하는 것보다 낫구나.

‘桃林’에 관련된 고사의 출처와 내용을 알아보자. 『書經』, 「武成」. “乃偃武修文, 歸馬于華山之陽, 放牛于桃林之野, 示天下不服.”이라는 구절이 있다. “무력을 거두고 文教를 다스릴 방침으로, 말을 華山の 남쪽에 돌려보내고, 소를 桃林의 들녘에서 풀어놓아 이것을 두 번 다시 쓰지 않을 것을 천하에 명시하였다.”라는 뜻이다. 桃林은 武王이 殷을 정벌하고 나서 정벌할 때 동원했던 소와 말을 방목한

23) 송주상, 앞의 책. 「地名沿革」 華陽洞. 一名黃楊, 以洞多黃楊, 故名.

24) 송주상, 앞의 책, 「地名沿革」, 九曲洞天. 今按九曲名號, 或仍地名, 或取古義. 多昉於先生時, 而其定爲九曲, 卽 實 滲菴權公所命也. 丹巖閔相公鎮遠以篆鐫刻, 而惟泣弓岩並有隸字大刻字乃尹憲柱筆, 又金沙潭邊大石刻華陽水石大明乾坤八大字亦尹筆也.

25) 向齊軍火燎身: 齊나라 田單이 燕나라에게 빼앗긴 성을 회복할 때의 행했던 고사를 가리킨다. 즉 소의 몸통에 비단 천을 두르고 용무늬를 그렸으며, 소의 뿔에 칼날을 묶고, 기름을 바른 갈대를 그 꼬리에 묶고 불을 질렀다. 그러자 소가 뜨거워지자 성이 나서 내달려 연나라 군대를 부딪쳐 죽게하여 회복한 성이 70여개가 된다. 『通鑑諺解』, 「周紀」 赧王. 『史記』, 「田單傳」.

26) 桃林: 武王이 殷을 정벌하고 나서 정벌할 때 동원했던 소와 말을 방목한 곳. 지금 河南省 閩鄉縣 남쪽. 『書經』, 「武成」. 放牛于桃林之野.

27) 김영진은 『괴산군서문집』, 괴산문화원, 2000, 81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도림에 누워 즐기니 봄풀도 자라네 桃林喜臥草生春”

28) 紫宸: 궁전의 이름. 『唐書』 | 百官志 | . 紫宸殿은 唐나라 궁전의 이름.

곳이다. 지금 河南省에 있다.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성운이 이런 고사를 동원한 이면에는 무왕시대처럼 태평성대를 동경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다. 또한 '선유팔경'을 설정한 이념의 추구했던 고고한 삶을 고무하고 찬양하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는 것이다.

成運은 을사사화 때 仲兄 成遇가 죽임을 당했다. 그 후 속세를 벗어나 지금의 충북 보은군 중곡리에 자연을 벗하며 은둔했던 것이다. “봄풀 자란 도림에 드러누워있기를 좋아하네.”라는 표현은 성운 자신의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華山之陽”의 준말이 ‘華陽’이다. 華山의 남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華山은 중국 五嶽中에 서쪽에 있는 山이다. 中峰은 蓮花峰, 東峰은 仙人掌, 南峰은 落雁峰인데 세칭 화악삼봉이라 한다. 화산은 중국 陝西省 華陰縣 南쪽에 있다. 일명 泰華이라 한다. 다음에서도 ‘華陽’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書經』, 『禹貢』에 “華陽黑水, 惟梁州”라는 문구가 있다. “華山 남쪽에서 黑水사이를, 梁州로 했다.”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지명중에는 중국의 지명을 차용한 경우가 상당 수 있다. 충북의 ‘淸州’·‘上黨山’등이 모두 그러하다. 지금의 화양동도 중국의 지명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가하면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념은 ‘樺皮冠’을 쓰고 있다.

거사는 선유동의 승경에 대해 후인들이 혹 어둑하게 될까봐 염려하여, 돌아다녀야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표시하여 알릴 방도를 생각한 것은 기이한 일이라 일컬을 것이며, 樺皮冠은, 또한 기이한 복식이라 일컬을 것이다. 29)

그가 ‘樺皮冠’을 착용하고 생활했다는 사실은 成運의 「仙遊居士索詩題荒句以塞其勤」 4수중 제 2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0)

古貌驚人氣吐虹, 古雅한 모습은 사람을 놀라게 하며 기개는 무지개를 토하고,
樺冠高戴似仙翁. 樺冠을 높이 쓰고 있으니 신선같네.
出山尋我翻如鶴, 산을 나와 나를 찾으니 학이 나는 듯한데,
滿袖猶啣溪壑風. 소매 가득히 오히려 계곡의 바람이 스며드네.

이념이 ‘樺皮冠’을 쓰고 있는 모습이 신선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제2구에서 신선같다고 했는데, 제3구에서 “학이 나는 듯하다”고 이념의 자태를 비유했다. 고래로부터 학은 신선의 화신으로 여겼으니, 이념의 고아한 풍채를 신선같다고 재 강조한 것이다. 樺는 華와 通한다³¹⁾. 따라서 樺冠은 華冠으로 보아도 될 것리다. 화산모양으로 만든 관이다. 이 華山巾건은 도사가 착용하는 頭巾이다.

위의 두 곳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념의 인품과 삶의 지향점은 중국고사중에 나오는 ‘華陽’과 ‘華山之冠’과 관련이 밀접하다. 이번엔 ‘華山之冠’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자. 華山之冠은 『莊子』 「天下」篇에 나온다.

宋鉞·尹文은 그 풍모를 듣고 기뻐하여, 華山의 冠을 만들어 스스로 표시했다. 玄英이 疏하기를 “華山은 그 형상이 깎은 듯하고 상하가 균일하게 평평한데, 宋과 尹이 뜻을 세운 것이 맑고 높다.” 라고했다. 그래서 관을 만드는 것은, 德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³²⁾

29) 宋寅. 앞의 글. 居士悲仙遊之勝. 後人或昧焉. 惓惓然不憚其跋涉. 圖所以表章之者. 可謂奇事. 而樺皮冠. 亦可謂奇服矣. 所恨. 余未有奇文以發揮之耳. 因介于高樞李典翰汝受·采谷李校理叔獻. 請發一語. 兩學士欣接而樂道之. 居士懷玉于褐. 意滿而歸. 茲綴首末. 使他日相遇者. 便知爲非凡人也.

30) 成運. 『大谷集』. 한국문집총간 28권. 19쪽. 「仙遊居士索詩題荒句以塞其勤」.

31) 『漢書』 「司馬相如傳」. 華楓樺櫛注. 華即今樺皮貼弓者.

32) 『莊子』 「天下」篇. 云. 宋鉞·尹文聞其風而悅之. 作爲華山之冠. 以自表. 玄英疏云. 華山其形如削. 上下均平. 而宋·尹立志清高. 故爲冠以表德之異.

‘華山之冠’은 덕이 남과 다름의 상징이자 고고한 덕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지의 표상이다.

지금껏 이념이 직접 작성한 문헌이나 그가 지은 글이 확인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그와 교유한 인사들은 당대 명사들이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앞에선 논문에서 밝혔듯이, 李寧은 成運·李滉·李珥·宋寅·申應時·朴枝華·柳成龍등과 교유했다. 이중에 李珥·申應時를 제외한 네 사람은 이념에게 시를 지어주었다. 이념이 七松居士라 호를 지은 것은 중국 당나라 때 사람 鄭薰의 호를 모방한 것이다. 정훈은 左丞까지 승진하고 노년에 호를 隱巖이라하고, 또 일곱 그루의 소나무를 심고 자신의 호를 七松處士라 했다. 이념도 선유동에 은거하면서 소나무 일곱그루를 심고 七松居士라 했다. 그는 과거공부를 하다가 여의치 않아 속세를 버리고 은거한 것이다. 그런 점과 교유인사들의 수준으로 볼 때, 그가 상당 수준의 학식이 있던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서경』 등에 나오는 고사를 섭렵한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양’이라는 지명은 이념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화양’이란 지명은 1차적으로 ‘화양목’이 많이 자생한다는 사실과, 2차적으로 樺皮冠(華皮冠)을 착용하고 고고하게 살았던 이념의 삶을 고무찬양하기 위해 뜻도 가미됐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고사와 지명에서 연유했다는 점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이념과 성운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의 동경이, ‘華陽’이라는 지명에 가탁화 표상화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본래 구곡이 신선사상의 산수자연에의 표상화이기도 하다. 결국 ‘화양동’이라는 지명에는 ‘華陽木’이라는 특산물과, 李寧과 成運의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書經』에 나오는 華陽에 의탁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할 합당할 것 같다.

다음은 ‘葩串’이라는 지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지명의 형성 요인중에 지형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葩串’이 지명의 연원에 대해 살펴보자. 葩는 花라. 중국 許慎의 『說文解字』에 “葩는 華也.”라고 했다. 이에 근거한다면 ‘葩串’은 ‘꽃같은串’이라는 뜻이다. 즉 ‘꽃처럼 아름다운串’이라는 뜻이다. 실제 과꽃은 절경이다.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그 경관을 예찬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葩溪’는 노수신이 시에 처음 사용한 이래, 송시열이 시에 ‘巴溪’라 표기하고있는데, 漢字 표기는 다르나 발음은 같다. 송시열의 제자이나 그와 교유했던 인물들은 대개 ‘巴串’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듯 화양구곡시대 이후 ‘巴串’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중에 관습상 ‘葩串’·‘葩谷’·‘葩串’등으로 쓴다. 과거의 지명이 세월이 흘러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漢字 表記가 바뀌거나, 예전의 이름이나 한자표기와 바뀌 이름이 공용되는 사례는 흔히 있다.

‘선유팔경’중 제3경인 ‘葩串’,이 화양구곡시대에 와서 한자표기가 ‘巴串’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추적해보기로 한다.

다음은 鄭來僑(1681~1757)의 「巴串」이라는 시이다. 제5구부터 보기로 하자.

泉廻巴字聲聲激, 물이 ‘巴’자로 돌아 물소리 우렁차고,
石作盤形種種奇. 돌이 소반되어 가지가지 기이하네.
潭上小窩瀟灑甚, 못 위 작은 집 매우 맑고 깨끗하니,
更須明日弄聽漪. 내일 다시 물소리를 들으며 놀러네.

우선 ‘巴串’의 지형이 漢字의 ‘巴’와 같은 물이 흐르는 곳이다. 쉽게말해 ‘巴’자로 물이 흐르는 곳이다. 정래교는 시에서 이를 표현했다.

다음 시에서는 諸葛亮 즉 臥龍先生의 고사를 끌어들이고 있다. 宋欽學, 『華陽誌』³³⁾, 「應華陽九曲依 武夷棹歌十韻」 제 7곡 臥龍巖을 읊은 시를 보기로 하자.

七曲龍巖枕石灘, 칠곡이라 龍巖이 바위여울을 베고있고,
一方魚水³⁴⁾臥雲看. 한쪽 곁엔 물과 물고기인데 누워서 구름을 바라보네.
草堂春睡今誰喚, 봄에 초당에서 즐기고있데 지금 누가 부르는가?
思漢人心尙自寒. 제갈량을 생각하니 마음이 오히려 절로 싸늘해지네.
臥龍巖

臥龍은 徐庶가 諸葛亮을 비유한 표현이다³⁵⁾. 臥龍巖은 제갈량을 의식하여 설정한 것이다. 제갈량은 劉備를 도와 蜀漢을 건설한 공로자다. 여기서 시인은 우암과 제갈량처럼 국가를 위해 진력할 수 있는 인재의 출현을 열망하고 있는 것 같다. 朱子가 설정한 ‘武夷九曲’ 인근에 제갈량을 모시는 ‘臥龍祠’라는 사당이 있다. ‘화양구곡’ 각각의 구곡을 설정하는데는 ‘武夷九曲’의 배경을 참고한 것이다.

이어 任相周의 「漫興詠華陽九曲」 제7곡 와룡암(臥龍巖)을 읊은 시 제2수를 보기로 하자.

知是南陽翁³⁶⁾, 알겠도다, 諸葛孔明이,
變化爲此石. 변화해 이 암석이 된 줄을.
平生興復意, 평생 부흥의 뜻,
蜿蜒如宿昔. 꿈틀 꿈틀 예전 같아라.

임상주는 와룡암을 제갈 량의 화신으로 여기고 있다. 그만큼 제갈 량에 대한 동경이 지대하다는 반증이다. 그와 같은 걸출한 인물이 출현하기를 열망하는 심정을 의탁한 것이다.

이번엔 任相周의 「漫興詠華陽九曲」 제 9곡 巴串를 읊은 시를 보기로 하자.

⑨ 巴串 『華陽誌』

제1수

憶昔漢昭烈³⁷⁾, 그 옛날 蜀漢의 劉備의 충열 생각하니,
都邑在西巴³⁸⁾. 도읍이 西巴에 있었네.
崢嶸彼劔閣³⁹⁾, 높고 높도다. 저 劔閣이,

33) 華陽誌는 3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복원본으로도 上·下 2책으로 1807년 우암의 傍玄孫 宋周相이 편찬한 것이 있다. 또 하나는 1861년 우암의 八代孫 宋近洙(1818~1902)가 편찬한 것이다. 또 인쇄본이 있다. 본고에서 인용한 화양구곡에 대한 두 사본의 시는 인쇄본에 실린 것이다.

34) 魚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군신이 서로 만나 잘 맞는 경우를 비유함. 『三國志』 「蜀志 諸葛亮傳」 先主解之曰 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35) 徐庶는 제갈 량을 臥龍이라 평함. 재주가 특출하나 아직 등용되지 않은 기특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비유함. 『三國志』 「蜀志 諸葛亮傳」. 先主屯新野, 徐庶見先主, 先主器之, 謂先主曰 諸葛孔明, 臥龍也. 將軍豈願見之乎?

36) 南陽翁: 諸葛 亮은 지칭. 字는 孔明. 삼국시대 蜀의 재상. 南陽 隆中에 은거하고 있을 때 劉備의 三顧草廬를 못 이겨 出仕한 후 유비로 하여금 蜀을 건국케 한. 徐庶는 공명을 臥龍이라 평함. 재주가 특출하나 아직 등용되지 않은 기특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비유함. 『三國志』 「蜀志 諸葛亮傳」. 先主屯新野. 徐庶見先主. 先主器之. 謂先主曰 諸葛孔明. 臥龍也. 將軍豈願見之乎?

37) 漢昭烈: 昭烈은 蜀漢의 始祖 劉備의 諡號.

38) 西巴: 蜀의 땅 四川省. 漢時에 蜀이 西方에 있었음.

39) 長安에서 蜀으로 가는 길인 大劔과 小劔의 두 山의 要害.

坦然成中華. 탄탄히 중국을 이루었네.

제2수

嗟茲一巴字, 아! 이곳 巴串과

地名胡相似. 지명이 어찌면 서로 같은가?

磷磷白石上, 희끗희끗한 흰돌 위로,

千載空流水. 누 세월 부질없이 물 흐르네.

巴串

제1수를 보자. 임상주는 ‘과꽃’이라는 지명에 고사를 연관시키고 있다. ‘巴串’과 蜀漢을 세운 劉備의 도움이 西巴에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짓고 있다. 제2수에서도 시인은 ‘巴串’이라는 지명이 유비의 서파와 서로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화양구곡의 과꽃이 중국의 西巴와 ‘巴’자가 같다는 점에 감탄한다.

西巴는 巴西⁴⁰⁾이다. 巴西는 三巴中의 하나이다. 三巴는 東漢末 劉璋이 설치하였다. 三巴는 巴群·巴東·巴西이다. 永寧을 巴群으로, 固陵을 巴東으로 고쳤다. 永寧은 지금 四川省 巴縣 忠縣일대, 固陵은 지금 雲陽 奉節일대, 巴西郡은 지금 閬中市이다. 巴蜀은 秦·漢時 巴蜀의 二郡을 설치한 곳이다. 지금 사천성인데, 이로 인해서 후세에 巴西는 사천성의 별칭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葩串’이 ‘巴串’으로 한자 표기가 바뀐 것을 대략 두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꽃’의 물흐르는 모양이 漢字의 ‘巴’자와 같다는 지형적 특징에 비중을 둔 결과이다. 둘째, 중국 제갈량의 고사를 관련지은 것이다. 이는 제갈량과 같은 인물의 출현을 기대하는 심리가 강렬하게 반영된 것이다. ‘武夷九曲’에 臥龍祠가 있는데, ‘화양구곡’에 제7곡에 臥龍巖을 설정하여 제9구곡 ‘巴串’의 지명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화양구곡’이 朱子の ‘무이구곡’을 모방했지만, 거기에 비견할 만한 조건을 구비했다는 것을 은연중 표출한 것이다.

5. 맺음말

지금의 선유동과 화양동일대에 1500년대 李寧(1514~1570이후 어느 시기)이 ‘선유팔경’을 설정했다. 그후 1600년대에 宋時烈(1607~1689)·權尙夏(1641~1721)·尹憲柱(1661~1729)·閔鎮遠(1664~1736)등에 의해 ‘화양구곡’이 완성되었다. 1700년대인 1752년 金時燦(1700~1767)·李普祥(1698~1775년)·鄭述祚(1711~1788)와 仙遊洞主人인 李尙侃(1715~1765) 등이 ‘선유구곡’을 설정하였다. 특히 ‘선유구곡’의 설정자와 설정연대를 확인하게 되어, ‘선유구곡’ 설정의 연원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선유팔경’의 권역은 후대에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으로 분화되었다. 이들 두 九曲은 바위에 명확하게 구곡의 명칭을 새겨놓아서 지금껏 그 존재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유팔경’은 거기에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전하나,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설정자가 직접 작성한 문헌이 전해지지 않아, 이제껏 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다행히 최근 필자가 그와 교류했던 인사들의 문집속에서 그의 존재를 찾아내어, 그에 대한 정보를 상당 수준 복원하게 되었다. 시각적으로 분명한 기록이, 실존했던 역사를 본의든 우연이든 퇴색시키거나 말살왜곡될 수 있다는 준엄한 사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이다.

40) 晉, 常璩, 『華陽國志』, 「巴志」“(劉)璋乃改永寧爲巴郡, 以固陵爲巴東, 徙(龐)羲爲巴西太守, 是爲三巴.” 『華陽國志』는 巴蜀에 관한 일을 기술한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華陽’·‘仙遊’·‘葩串’의 漢字 표기 변천과정을 정리해본다. 제1기인 1500년대에 ‘華陽(黃楊)’·‘仙遊’·‘葩串(葩溪)’에서, 제2기 1600년대에 ‘華陽’·‘仙遊’·‘葩串(巴串·葩谷·巴谷·巴溪)’등으로 표기되었다. 제3기 1700년~1800년대에 ‘華陽’·‘仙遊’·‘葩串(巴谷·巴溪)’등으로 표기되었으며, 제4기인 현재에 이르러 ‘華陽’·‘仙遊’·‘巴串’으로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화양동’은 지금의 청천면 화양리 ‘金沙潭’ 근처 즉 ‘華陽書院’과 ‘萬東廟’가 있었던 주변을 지칭하는 것이다. ‘葩串’은 지금 ‘화양구곡’ 제9곡 ‘巴串’을 지칭하는 것이다. ‘華陽洞’은 ‘선유팔경시대’에는 제3경 ‘華陽賞春’이 설정되었던 곳이며, ‘葩串’은 제4경 ‘葩串尋僧’이 설정되었던 곳이나, ‘화양구곡시대’에는 제9곡 ‘巴串’이 설정된 곳이다.

‘華陽’이라는 지명은 李寧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화양’이란 지명은 1차적으로 ‘화양목’이 많이 자생한다는 사실과, 2차적으로 ‘樺皮冠(華皮冠)’을 착용하고 고고하게 살았던 이념의 삶을 고무찬양하기 위한 뜻이 가미됐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고사와 지명에서 연유했다는 점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즉 李寧과 成運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의 동경이, ‘華陽’이라는 지명에 가탁화 표상화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본래 구곡이 신선사상의 산수자연에의 표상화이기도 하다. 결국 ‘화양동’이라는 지명은 ‘華陽木’이라는 특산물과, 李寧과 成運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인 『書經』 「武成」 편에 함축된 의미가 결부되어 형성된 것이다. 즉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동경하는 염원이 ‘華陽’이라는 지명에 의탁 반영된 것이다.

‘巴串’의 漢字表記가 달라진데는 일정한 이유가 있다. 첫 째, 지명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葩串(巴串)’이라 썼다. 둘째, ‘葩串’에 흐르는 시내라는 의미로 쓸 때는 ‘葩溪(巴溪)’으로 썼다. 셋째, 지명과 시내를 통칭하는 관용어로 썼다. 넷째, 초기에 ‘葩串(葩溪)’로 표기하다가, 후대로 오면서 ‘巴串’·‘葩谷’·‘巴谷’·‘巴溪’등으로 표기했다. 때로 詩의 平仄을 맞추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운을 쓰는 과정에서 한자 표기가 달라지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葩串’이 ‘巴串’으로 한자 표기가 바뀐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과꽃’의 물흐르는 모양이 漢字의 ‘巴’자와 같다는 지현적 특징에 비중을 둔 결과이다. 둘째, 중국 제갈량의 고사를 관련지은 것이다. 이는 제갈량과 같은 인물의 출현을 기대하는 심리가 강렬하게 반영된 것이다. 중국 ‘무이구곡’에 臥龍祠가 있는데, ‘화양구곡’에 제7곡에 ‘臥龍巖’을 설정하여 제9구곡 ‘巴串’의 지명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화양구곡’이 朱子の ‘무이구곡’을 모방했지만, 거기에 비견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명칭상으로 표출한 것이다.

본고에서 규명한 일련의 내용들은 ‘九曲文化觀光特區’의 白眉인 ‘선유팔경’·‘화양구곡’·‘선유구곡’의 연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정보가 될 것이다.

【參考文獻】

- 『莊子』
 具思孟, 『八谷集』, 한국문집총간 40, 민족문화추진회.
 盧守愼, 『蘇齋集』, 한국문집총간 35, 민족문화추진회,
 朴枝華, 『守庵遺稿』, 한국문집총간 34, 민족문화추진회.
 成 運, 『大谷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8, 민족문화추진회.
 宋 寅, 『頤庵集』, 한국문집총간 36책, 민족문화추진회.
 柳成龍, 「終天永慕錄」, 『古文書集成』 18, 下回豊山柳氏編(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李萬憲, 『小山公文集』, 編輯者 李苾榮, 1922년.

- 李山海, 『鵝溪遺稿』, 한국문집총간 47, 민족문화추진회.
- 李 楨, 『龜巖先生文集·續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李 滉, 『퇴계집』, 한국문집총간 29~30, 민족문화추진회.
- 權尙夏, 『寒水齋集』
- 金昌協, 『農巖集』
- 朴建中, 『仙谷遺稿』, 回想社, 1990.
- 朴文鎬, 『壺山集』
- 朴世采, 『南溪集』
- 朴胤源, 『近齋集』
- 宋時烈, 『宋子大典』
- 申靖夏, 『怨菴集』
- 沈 鎭, 『樗村遺稿』
- 尹鳳九, 『屏溪集』
- 李夏坤, 『頭陀草』
- 鄭來僑, 『浣巖集』
- 宋周相, 『華陽誌』
『忠清道邑誌』, 아세아문화사.
- 괴산향토사연구회, 『괴산지명지』, 1997.
- 『慶州李氏派譜』. 1922. 1956년.
- 『慶州李氏尙書公世譜』, 1999년.
- 『璿源續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廣州李氏族譜』, 1919.
- 『安東金氏世譜』, 1833.
- 『海州鄭氏族譜』, 1917.
- 김영진, 『忠北文化論考』, 향학사, 1997.
- 김종륜집필, 『槐山郡誌』, 1969.
- 李相周, 「九曲詩의 傳統과 華陽九曲詩」, 『教育科學研究』 제13집,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 李相周, 「葛隱九曲과 葛隱九曲詩」, 『한문학보』 2집, 우리한문학회, 2000.
- 李相周, 「盧性도와 烟霞九曲歌」, 『한문학보』 4집, 우리한문학회, 2001.
- 李相周, 「盧性도와 烟霞九曲歌」, 『괴향문화』 9집, 괴산향토사연구회, 2001.
- 李相周, 「“九曲文化觀光特區”와 九曲詩 研究」, 『東西語文研究』 제17집, 청주대학교 東西語文學會, 2001.
- 李相周, 「槐山郡 仙遊洞의 傳說的·仙趣의 인물 李寧의 가계와 생애」, 『中原文化論叢』 제5집, 충북대학교 中原文化研究所, 2001.
- 李相周, 「仙遊九曲과 仙遊九曲詩」, 『開新語文研究』 제18집, 충북대학교 開新語文學會, 2001.
- 李相周, 「洪致裕의 仙遊九曲詩」, 『忠北作家』 2002년 여름호, 2002.